동네방네

양귀비꽃 활짝 핀 자유로

자유로에 양귀비꽃이 개화해 파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2019년 가을에 자유로 휴게소~첼시아울렛IC에 이르는 자유로변 녹지대 2.2km구간에 양귀비 꽃을 파종했다. /파주시

광주TP, AI 정보-아이디어 공유 지식콘서트

광주테크노파크는 21일 지역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인공지능분야 정보-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지식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I&I(Information & Ideas) 지식콘서트는 지역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으로 기획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지식콘서트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시장·특허 동향, 적용사례, 지역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으로 구성해 매달 2차례 개최한다. /광주=김태수 기자

안동시, 저소득층에 무릎 수술비 지원

노인의료 나눔재단 연계

안동시는 연중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무릎 한쪽을 기준으로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안동시보건소로 신청해 지원자로 선정되면 노인의료 나눔재단에서 수술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단,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이뤄진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안동시보건소 전경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옥 건강증진과장은 "수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 할 수 있으며,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과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오늘의 날씨

해뜸 / 05:18 | 해짐 / 19:40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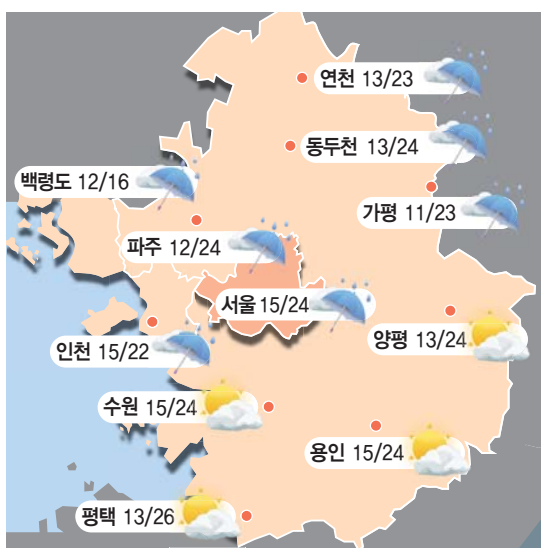
22일(金)

음력 : 4월 30일

수도권 날씨

24~15℃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일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단지 활성화·기업유치 '날개'

조성 원가이하 공급, 수의계약 가능
IT·BT 등 260여개 기업 입주의향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국토부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경기도내 공업물량 10만㎡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까지 IT·BT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발맞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의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시행기관 실무회의를 수시로 운영해 사업추진 현안 등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를 기획, 설계했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신안군, 정지된 흑산공항 착공 '날갯짓'

2016년 11월 공원위 심의서 보류
식생, 보전등급 재산정 용역 발주
소형 항공기 안전성 조사 병행

전남 신안군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흑산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심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2023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던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지난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보류가 결정된 이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서류 보완 등을 거쳐 이후 2차례 심의가 재개됐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등으로 2018년 10월 중단된 심의는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보류한 이유는 철새보호 대책과 국립공원 가치훼손, 안전성 등을 들었다.

흑산공항 위치도 /뉴시스

또 항공기 안전문제와 국가정책기관(KDI) 예비타당성조사 등 경제성 및 안전성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기한 식생현황과 보전등급 재산정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서는 붉은배새매 추가조사와 섬향나무, 수달 등 동·식물 생태환경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소형항공기의 안전성 측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흑산공항에 투입하는 기종은 유럽과 미국의 인증항공기로 제작사와 함께 활주로 길이 등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꼼꼼하게 보완자료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2007년 철새보호 담당부서를 신설한 신안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한 준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19년 철새서식지 안정화사업 대상지에 대한 조사에 이어 흑산공항 건설 안전성과 환경성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흑산권역 철새보전을 위해선 매년 3ha의 농경지에 조와 수수 등 파종해 철새먹이로 제공하고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문경새재 입구 반려동물 힐링센터 조성

문경시는 문경새재 입구에 반려동물 힐링센터가 들어서 오는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도립공원인 문경새재에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어, 관광객들이 반려동물을 맡길 공간이 필요해서다.

문경시는 사업비 4억4000만원을 들여 문경새재 입구 부지 657㎡에 건축면적 124㎡인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짓고 있다.

센터에는 보관소(반려동물 호텔)를 비롯해 휴게실, 동물 미용실, 잔디 운동장 등을 조성한다.

반려동물 이용료는 크기에 따라 1일 기준으로 5000~1만5000원이다.

주인이 문경새재를 관광하는 동안 반려동물이 센터 내 보관소에서 휴식하거나 잔디밭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

문경시는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운영할 관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입찰을 받아 관리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경(경북)=장성우 기자 krhon@

반려동물 힐링센터